

한·일 로마자 표기의 비교연구

— 영어발음기준 —

김복문(충북대 무역학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Romanization of Korean and Japanese with English as the Standard of Pronunciation.

Kim, Bokmoon

The two existing romanization systems in Korea, namely the recently promulgated Ministry of Education version sponsored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corporating for the most part the McCune-Reischauer system and the Hangeul Haghoe or the Korean Language Society's version, must be judged as failures; the former for its disregard of Korean orthography and pronunciation, use of Latin-oriented pronunciation despite its assertion that English is the standard used, and the greatest weakness of all, its use of phonetic symbols neither found in regular typewriters, teleprinters, word processors and telex machines nor understood by laymen, sometimes not even by specialists.

And the latter suffers from its undue emphasis on Korean orthography, Latin-oriented pronunciation being only partly capable of representing Korean pronunciation, among other shortcomings.

Since the two existing romanization systems of Korean in South Korea, and romanization system of Japanese with Latin-oriented pronunciation are woefully inadequate, in today's world where English is used as if it were the international language almost all over the world, the present writer has invented a completely new system of romanizing Korean and Japanese by the so-called pseudo-phonetic method. This method employs the roman letters only and uses them in place of phonetic symbols as long as the letters thus applied are believed to have constant sound value. The English pronunciation is the standard used for this system.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된 정보사회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및 일본어의 로마자 체계와의 연계는 국내본사와 해외조직망, 그리고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전파를 함에 있어 국제간의 교신을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쉽고 제나라 출생 한·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수용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작업이나 기계적 조작에도 적절한 정확한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체계의 존재가 전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에는 현재 주한미군을 위시한 외교공관과 외국상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M-R안과 한국어에서 개척하기로 되어 있었던 '86아시아 및 '88올림픽 경기에 대비, 학술원이 추천한, M-R안과 사소한 점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것인 정부안, 그리고 한글학회안 등 대표적인 2~3개의 안이 있는바 그 모두가 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실패작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이유인즉 M-R안과 현 정부안은 한국어의 올바른 철자와 발음을 무시한 결과 서로 상관성을 지녀야 할 로마자 표기와 외래어 표기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되어 버렸다. 또한 사용된 발음의 표준이 영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에서처럼 자음만 영어고 모음은 나전어(이태리어)(M-R안해당)이며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한국 정부안의 발음표준은 범세계적인 것(전세계에 통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에서)이라고 막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자음은 영어, 모음은 나전어(이태리어)인 일본 것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또 M-R안과 정부안의 가장 큰 약점으로는 일반 타자기나 전자인쇄기, 워드프로세서와 텔렉스 기계로 부호를 나타낼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 알지 못하는 특수음표부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M-R안및 한국정부안 해당) 이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 기구)의 로마자 표기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지침(Guideline) 즉 ① 음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로마자만 사용하여야 하고, ② 한 음소에 로마자 하나 또는 한 조, ③ 로마자화된 글자는 원어와 동일한 발음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한국정부안과 관련하여 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용하는 기계에 해당부호가 없을 때에는 그것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는 단서조항을 부기하고 있는바, 그것때문에 한국정부안은 더욱 혼돈스럽게 되고 있다.

한글학회안의 약점은, 다른 단점들 가운데서도 로마자화의 근본 취지가 로마자 사용권 언어와 그렇지 못한 문자체계 언어에 있어 동일 발음을 갖는 철자의 짝 맞추기에 있음을 경시하고 한국어의 철자만을 중시하여 어떤 로마자에 해당하는 한글의 음소만을 1대 1로 전자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그로인해 로마자화된 한글을 외국어(영어포함) 발음기준으로 읽듯이 읽으면 묵음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한국어의 철자가 로마자화된 채 읽히는 등 하여 의도된대로 한국어의 발음이 되지 않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인들에게조차 그 이해에는 암호해독에 버금가는 시간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그 언어의 글자 체계가 로마자로 된 것이 아닌 어떤 언어의 로마자 표기화를 시도 하는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M-R안및 현 한국정부안, 그리고 한글학회안 체계,

일본어에 대한 헵번 체계, 그리고 중국어에 대한 웨이드-자일즈 체계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뒤죽박죽(hopeless jumble)인 영어모음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이태리어에서 로마자 모음글자가 갖는 기본적인 모음소리 발음을 그 기준으로 하여 로마자 표기화를 하여 왔다.

특히 일본어의 5개의 모음글자 발음이 이태리어에서 발음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5개의 모음글자 발음과 우연히 일치하는 행운에 힘입어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일본어의 경우가 성공적이었다 하여 그 방식으로 하면 한국어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거나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경우 첫째 로마자 표기화를 하여야 할 모음의 대상수가 21개나 되어 5개에 지나지 않는 일본어의 모음자나 이태리어의 기본모음자 5개보다 훨씬 많고, 둘째 양국어는 음절의 구성이나 음운의 조직이 판이하게 다르고, 셋째는 자음의 경우 일본어는 한 자음이 한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데 비하여 한글의 경우는 어떤 글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무성을 포함하여 그것이 여러가지 소리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가지 현상으로 말미암아 한글 로마자 표기안의 하나인 M-R안의 창시자 라이샤우어씨도 자기의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일찌기 시인하면서 한국인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마련되는 새로운 안의 출현을 희망한다고 말한바 있다.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일본식 로마자 표기방식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언어학자/음성학자들이 무의식 중에 일식을 모방하여 만든 한글의 로마자 표기안 역시 처음부터 이론상 그 출구(해결책)가 없는 것으로 운명지워져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이를 시도한 한글학회 소속 어떤 유명한 언어학자는 한글의 로마자 표기화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고까지 단언하면서 제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한들 결과는 비관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현 한국정부안을 지지한 한 언어학자는 그래도 그 정부안이 '차선책중에서의 제일가는 선택'이라며 원하는 원하지 않은 최선의 것이 도저히 없을 바에야 그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로마자 표기화와 관련 어느 나라 말을 발음의 기준으로 하느냐하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전사 우선이나 전자 우선이나 하는 문제다. 한 글자는 항상 동일한 음가를 지닐 뿐만 아니라 받침으로 끝나는 자음이 불과 몇 개 정도 밖에 안되어 전사가 곧 전자가 되는 일본의 로마자 표기와는 달리, 한글의 경우는 한 자음이 그 위치와 전후에 어떤 글이 오느냐에 따라 그 글자에 대한 발음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우선을 주장하는 현 한글학회안 지지자와 전사를 우선으로 하는 M-R안 및 현정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직도 끊임 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사주의라 하는 M-R안 및 정부안도 검토하여 보면 모음과 자음의 로마자 표기 전사에서 처음부터 틀린 점이 많다. 또한 전자주의 우선이라는 한글학회안도, 로마자를 언어의 표기수단으로 하는 하나의 언어와 한국어의 공통요소는 발음인데 로마자 표기화에 있어 그 공통요소인 발음이 가져야 하는 우선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어에서의 묵음인 자음글자가 로마자로 전자되었을 때에는 발음

이 되어야 하는데에서 오는 혼란이 매우 크다. 게다가 한글 모음에 해당하는 로마자를 배정함에 있어서 전혀 실험을 등한시한 자의성이 개입되고 있다. 금번의 조사결과 한글학회의 전자우선이나 M-R안 및 한국정부안의 전자우선이나 하는 문제는, 양자 모두 로마자 표기와 관련 시켜보면 그것들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음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자우선인 M-R안과 한국정부안은 자음의 로마표기와 관련 ㄱ(g), ㄷ(d), ㅂ(b), ㅈ(j) 해당발음을 [g, d, b, dʒ]로 하지 않고 [k, t, p, tʃ]로 함으로써 ㅋ(k), ㅌ(t), ㅍ(p), ㅊ(ch)에 대한 발음 즉 [k, t, p, tʃ]와 중복이 되게 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한글의 자음체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글모음의 표기와 관련

① 어[a], ② 여[jə], ③ 으[w], ④ 외[we], ⑤ 의[wi]의 표기를

① Ö, ② YÖ, ③ Ū, ④ OE, ⑤ Ū로 함으로써

그 발음이 나전어 발음으로는

① 오[o], ② 요[jo], ③ 우[u], ④ 오에[oe], ⑤ 우이[ui]가 되고

영어발음으로는 ⑤ 의[wi]를 제외

① 오우[ou], ② 요우[jou], ③ 유[ju], ④ 오우[ou]로 되도록 함으로써 여기서도 발음의 전사가 사실상 못되고 있다.

전자 우선인 한글학회안도 모음표기의 경우

① 어[a], ② 여[jə], ③ 으[w], ④ 외[we], ⑤ 의[wi]의 표기를 아무

런 근거없이

① EO, ② YEO, ③ EU, ④ OE, ⑤ EUI로 함으로써

그 발음이 나전어로는

① 예오[eo], ② 이에오[jieo], ③ 예우[eu], ④ 오에[oe], ⑤ 예우이[eu]

가 되고

영어로는

① 이오우[iou]→요우[jou], ② 이오우[jiou]→요우[jou], ③ 유[ju], ④ 오우[ou],

⑤ 유아이[juai]

로 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의도하는 모음발음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 자음의 경우도 간단한 예로 가격을 나타내는 ‘값’[gap]의 경우 그 표기가 GABS가 됨으로써 그 발음이 나전어로는 가브스[gabs], 영어로는 개브스[gæbs]가 되어 실용상 문제가 있다.

근세 이씨왕조의 개항과 거의 때를 같이하는 1881년에 불어발음기준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안이 처음으로 생긴 이래 지금까지 1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약 40~50개로 추정되는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안)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나 외국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어에 알맞는 로마자 표기법을 한국인들이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 하지 않고, 일본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방식을 한국인의 뇌리속에 간직, 불행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바탕위에서 성과없는 노력만 헛되이 되풀이 한데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남한의 한국어에 대한 현존하는 2~3개의 로마자 표기 체계는, 북한에서 마련된 것

을 포함하여, 영어가 세계어와 다름없이 통용되는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는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다. 특히 한글의 로마자 표기를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능률적인 영어교육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로마자 표기화에 관한 일반이론체계나 확립된 정론이 없는 현단계에서 필자는 완전히 새로운 한글의 로마자 표기화 체계를 소위 모의발음부호법에 의하여 창안하였다.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이 방식은 로마자만을 사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소리 값을 지니고 있는 로마자들을, 발음부호 대신으로 사용하지는 것이다. 모음발음의 표준이 나전어 즉 이태리어로 되어 있는 위에 언급된 한국의 2~3개의 대표적인 로마자 표기 체계와는 달리 이 체계의 표준으로 사용된 발음은 영어다. 왜냐하면 영어발음이 기준이 된 이유중의 하나는 영어가 오늘날 그것이 마치 국제어처럼 세계도처 거의 어디서나 통용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한글을 로마자화 할 때에 21개나 되는 한국어의 모음수에 훨씬 못 미치는 5개의 로마자 나전어발음 표준모음(즉 A, E, I, O, U)만으로 한글을 표시하려는 데에서 빚어진 수 많은 실패의 흔적과 그 문제에 관여한 여러 학자들의 발언 및 본연구에서 밝혀진 로마자 표기화의 이론적 불가능성 때문이다.

이 새로운 모의발음부호법의 사용으로부터 한국인 및 일본인 그리고 외국인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주소와 개인명, 거리명, 지명표기를 쓰는데 있어서 그리고 한국어나 일본어의 교육과 습득은 물론 상업교신을 함에 있어 그것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또 로마자를 통해 한국인 및 일본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로마자화된 한국어나 일본어를 마치 그들이 영어를 읽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그들이 이미 영어의 철자소리와 발음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들은 모든 종류의 텔레크스 기계 및 컴퓨터에서 있는 로마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국제간의 교신을 위해 한국어 및 일본어 내용의 단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 체계를 쉽사리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엄청나게 많은 시간적 그리고 노력면의 절감이 이 체계의 이용을 통하여 국제 교신에서 한국인 및 일본인들과 여타인들 사이에 번역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점에 있다.

전사법 우선이나 아니면 전자법 우선이나 하는 문제는 모의발음부호법을 통한 로마자 표기법의 채택 사용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동시에 해결된다. 왜냐하면 귀에 들리는 발음을 따라 먼저 로마자 표기가 되는 것이 이 표기법의 전제가 되어 있으므로 전사에 대한 필요성은 로마자화 과정에서 충족된다. 그리고 로마자화된 글이 가져온 발음이 한글이나 일본어의 원철자를 회복하는, 소위 탈로마자라고 호칭될 수 있는, 즉 한글화 및 일본어화 과정에서 그 해당 원어의 철자는 사람의 손으로 또는 기계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자의 필요성 또한 충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필자는 더 나아가 그의 로마자 표기법을 매우 복잡한 한국어의 문법과도 연결시켜 컴퓨터로 하여금 로마자화 된 한국어 내용의 단어를 한국어 철자대로 전자하거나 그 역의 자동화가 가능토록 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필자는 점차 늘어가는 영어사용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음에 대한 발음의 기준을 나전어(즉 이태리어)로 하여 마련된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도 나전어 대신, 영어발음기준으로 일본어 모음을 로마자화하는 방법의 가능성에 관하여서도 특히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방식도 이제는 자기 나이보다 오래 살았으며 영어가 실질적으로 세계어로 되어버린 오늘날 세계에서 더이상 오래 살아남게 될 수 없게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가 이미 각국에 송부한 지침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로마자 표기화에 있어 영어의 발음과 철자에 대한 난을 싣고 있는 영어사전을 참고, 로마자화를 위한 발음의 표준을 영어로 하여야 함을 확인할 것 ② 지금까지 한 언어를 로마자화하는데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이론이나 기본 원칙이 없는 마당에 로마자 표기화를 위하여서는 일찍이 그런 종류로서는 처음의 것인 필자의 모의발음부호법이 실용화될 수 있는 방식중의 하나임을 추천할 것 ③ 어떤 언어를 로마자화하는 데 있어 어떤 언어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고려되거나 예외적인 사항을 유의사항으로 허용할 것 등이다.